

45억 아시아인들의 위대한 도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 기간 : 2014. 9. 19 ~ 10. 4(16일간)
- 장소 : 인천광역시 및 9개 협력도시 (서울, 고양, 안산, 화성, 부천, 수원, 안양, 하남, 충주)
- 참가규모 : 45개국(선수 및 임원 13,000여 명, 방송보도 등 7,000여 명)
- 경기종목 : 36개 종목(47개 세부종목)
- 주요시설 : 경기장(49), 훈련장(51), 선수촌, 미디어센터 등
- 주요행사 : 개·폐회식, 성화봉송, 문화행사, 국제회의 등
- 주최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Olympic Council of Asia)
- 주관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IAGOC)

올림픽 28개 종목

수영,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골프,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럭비, 요트, 사격,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배구, 역도, 레슬링

비 올림픽 8개 종목

야구, 볼링, 크리켓, 카바디, 공수도, 세팍타크로, 스쿼시, 우슈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아시아의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된다. 인천은 지난 2007년 쿠웨이트에서 열린 OCA 총회에서 인도 뉴델리를 제치고, 개최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7년간 숨가쁜 나날을 보내며 남은 준비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마무리가 한창이다.

16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45개국 선수 및 임원, 미디어, 심판 및 기술임원, 초청인사 등 약 23,16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20만 명의 외국인 관람객을 포함해 200만 명이 관람하는 아시아 최대의 축제가 될 전망이다.

개막식을 앞두고 인천시 및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인천이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계기가 되는 이번 대회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아시아인 모두가 공감하는 나눔과 배려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연초 북한의 아시아게임 참여 역시 이런 맥락으로, 북한은 최근 전 종목 참가를 선언함으로써 남북 화합과 평화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 참여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에서는 국내의 주요인사, 연예인,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시민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리하는 한편, 아시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사업가, 주요기관 파견자 등을 대상으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국내는 물론 아시아 각국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을 널리 알리고 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의 엠블럼은 Asia의 이니셜 'A'를 사람으로 형상화하여 아시아인들이 서로 손잡고 비상하는 날개의 형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고, OCA 심볼이자 아시아경기대회를 상징하는 Bright Sun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은 밝은 미래를 향한 영원한 전진을 의미하며 전 세계인이 축제에 동참하길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의 목표는 최첨단 IT와 탄소중립, 소통과 화합·배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효율성을 높인 대회를 위해 조직되고, 진행되어 왔다.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Diversity Shines Here)로 아시아 각국의 찬란하고 다양한 역사, 문화, 전통, 종교 등을 한자리에서 펼쳐 보이고(빛내고), 우정과 화합을 통해 아시아가 하나 되어 빛나는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종목은 모두 36개 종목으로 47개의 세부종목으로 나뉘며, 종목을 형상화한 픽토그램으로 알아보기 쉽게 관람객에게 인지된다. 대회의 공식 마스코트로는 바다의 도시 인천답게 점박이 물범 삼 남매로 지정됐다. 비추온(Vichuon), 바라메(Baramé), 추므로(Chumuro)의 캐릭터는 각각 빛, 바람, 춤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인천과 아시아게임을 대표하며, 조직위는 이 세 마스코트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활용하여 이번 대회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종목을 형상화한 픽토그램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내외관 모습



6월 1일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VS 쿠웨이트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개·폐회식이 열리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하여 4년간의 노력으로 지난 5월 7일 준공되었다. 주경기장은 전체 연면적 11만 3,620㎡에 5층 규모로 보조경기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췄는데, 하늘과 바다를 안고 있는 인천에서 일어나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즐거운 아시아와 빛의 자위, 바람의 물결을 인천의 이미지로 형상화했으며, 9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육상, 크리켓, 마라톤 결승전, 폐회식이 열린다.

총 6만 2,818석의 관람석 중 3만 2,500여석의 가변형 관람석은 대회 기간에만 임대 사용해 공사비를 절약하고, 대회 이후 철거해 대형 영화관, 할인점, 아울렛, 연회장, 뷰티클ินิก, 스포츠센터 등 대규모 상업 및 문화시설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친환경 대회를 표방한 대표 시설인 만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외형이 인상적인데 아시안게임으로 바람이 물결치듯 남북으로 펼쳐진 2개 지붕, 빛이 산란되는 투명하고 열린 느낌의 파사드, 승무의 춤사위를 닮은 곡선미로 형상화해 동아시아 허브로 비상하는 역동적인 인천을 표현했다.



2010년 11월 27일 열린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 인천을 소개

다라는 주제의 폐회식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에서는 고은 시인이 대회를 위해 특별히 헌시한 '아시아드의 노래'에 곡을 붙인 노래가 성악가 조수미와 919명의 인천시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에 의해 불릴 예정이며 문화행사는 굴림쇠 소년을 시작으로 무대가 전환되어 아시아의 과거·현재·미래를 만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공연으로 이어진다. 이후 국기입장, 선수단 입장, 공식연설 및 개회선언 등으로 구성된 본 행사가 펼쳐지며 선수대표 및 심판대표 선서를 끝으로 공식행사가 마무리되면 성화점화에 이은 가수 사이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를 끝으로 선수단이 퇴장하며 막을 내릴 예정이다.

곧 다가올 열정의 순간

인천은 지금 대회가 막 바지에 이르러 마지막 준비차 경기장 안전점검, 선수촌-미디어촌 개장 준비, 교통·숙박 대책을 최종 점검하며, 전체 49개 경기장에서 안전점검을 벌이며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수촌-미디어촌은 남동구 구월동 신축 아파트 단지에 조성됐는데, 선수촌은 22채 2천 220실, 미디어촌은 15채 1천 147채로 선수 1만3천 명, 취재진 2천 900명이 이용하게 될 선수촌-미디어촌에 대한 마감공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9월 5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 4천 명과 함께 대회 운영을 지원할 시민서포터스 구성도 마무리되었으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시민서포터스 7만 명은 참가국 선수단 공항 환영·환송식, 선수촌 환영행사 지원, 성화봉송 주자 참여, 경기장 응원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개·폐회식은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임권택 감독이 총감독을, 젊은 장진 감독이 총연출을 맡아 전 세계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인천과 인천시민이 만들어내고, 약소국에 대한 배려로 서로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준비된다. 개·폐회식은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전체 주제 아래 '아시아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개회식과 '아시아는 이제 인천을 기억할 것 입니

또한, 아시아게임을 홍보하고, 분위기를 띄울 다양한 축제도 열릴 예정이며, 조직위는 지난 8월 20일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하며 실전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상 메달



대회 기념우표



국내 성화 강화 마니산 채화



대국민 AG홍보단 운영



자원봉사자 발대식



유니폼 발표회

방송 중계는

KBS와 MBC가 주관방송사로 주관방송운영회사인 IHB(Incheon Asian Games Host Broadcasting Management)는 주요 경기의 국제신호를 제작하고, 국제방송센터(IBC)를 구성, 운영하며 방송권자에게 방송에 필요한 설비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HD로 신호를 제작함에 있어 SD 혹은 아날로그 방송을 하는 국가들을 위해 화면비율을 4:3으로 영상을 표현하며, 회선상의 문제를 대비하여 PGM 녹화가 강조되고, 전 세계로 방송되는 국제신호이기때 항상 안정되고 정제된 영상 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전국 방송사의 중계차와 제작진, 방송장비 등이 투입되며, 현재 IBC에서 제작설비 마무리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 기술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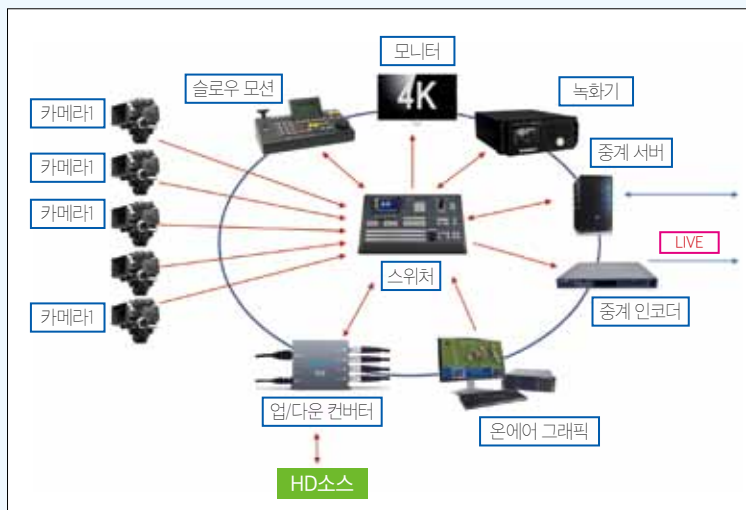
- ▶ International Signal Standard : HD
- ▶ Video Signal Format
 - HD-SDI 1080i/59.94Hz (SMPTE 292M) aspect ratio 16:9
 - SD-SDI 480i/59.94Hz (SMPTE 259M) aspect ratio 16:9
 - 4 : 3 graphics safe mode
- ▶ Audio Signal Format : Stereo 4 Channels embedded audio (-20 dBfs)
 - CH 1 : TV 스테레오 IS Left
 - CH 2 : TV 스테레오 IS Right
 - CH 3 : TV 모노 IS
 - CH 4 : English Commentary(Certain Feeds) of TV MONO IS
- ▶ 뷰티샷 : 4 Feed 제공



IBC의 CDT 구축 모습

4K UHDTV 실시간 중계 실험방송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국내 지상파의 4K 실시간 중계 실험방송이 결승전을 포함해 3경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제한적으로 4K 실험방송이 예정되어 있다. 배구 종목으로 현재 구상 중이며, 4K 실험방송은 HD 본 중계방송과는 별도로 제작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4K로 제작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가 곧 현실로 다가올 4K 방송시대를 위한 제작 노하우를 습득하고, 실시간 엔코더, 자막합성, SFN 전송실험 등 다양한 기술적 실험으로 4K 본방송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국내의 뛰어난 제작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4K 영상을 홍보함으로써 차세대 방송에 대한 국민적 호응과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4K 중계시스템 구성도

※ 방송센터 시스템 구축(안)

- 카메라 6 ~ 8대와 4K 중계 제작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중계방송
- 주요장비
 - 영상(4K) : 카메라, Video Switcher, Router, VDA, F/S, 서버&스토리지, UHD Interface Unit 등
 - 음향(스테레오) : Mixer, 인터럽, Audio Multi-Channel Monitor, Optical Jeep System, MIC 등
 - 중계장비 : 실시간 Encoder, Network Interface
 - 모니터링 : 4K영상 모니터
 - 기타 : 방송센터 시설공사, 전력 시스템, 기기부품 등

※ 방송제작관련 자료 및 사진 제공 : KBS